

취약계층 우대 예금·대출 잇따라 등장

취약계층에 금리나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예금과 대출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0여개 은행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예금 및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다.

우대받는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은 물론 저신용·저소득자도 포함된다.

우대 예금상품은 6월말 기준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 가입자는 6월말 기준 약 43만명이며 가입액은 1조3233억원에 달한다. 1인당 약 300만원이 이 상품들을 이용 중이다.

이중 1조2862억원에 달하는 대부분 상품이 금리우대형이다. 송금 수수료 등 면제 상품이 3554억원, 중도해지시에도 기본금리 적용되는 상품이 1827억원, 무료보험 가입 상품 4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우대 예금상품 40개...1인당 300만원 이용 12개 대출상품 금리 등 11만명 4575억 지원

재원별로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308억원으로 82.8%에 달했다.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925억원(37.2%)이다.

기령 신한은행은 기본금리 연 3%에 우대금리 연 1.5%를 제공하는 '신한새희망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서민의 자립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매달 20만원까지 최고 연 4.5%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해 5C행복적금을 팔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이 가입기간 중 사망이나 결혼, 출산, 입원 등의 사유로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연 4.7%)를 적용한다.

서울시와 연계한 우리은행 '꿈나래통장'도 있다. 취약계층이 3년 또

는 5년간 매달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액이나 절반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이면서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가입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말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다. 약 11만명이 4575억원 상당 지원을 받았다. 이는 1인당 약 416만원에 해당된다.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이다.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99.7%), 대출 수수료 면제 등 기타혜택을 제공받은 대출금이 3161억원(69.0%)에 달했다.

기령 기업은행이 판매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한 상품으로 연 1.0~2.5% 저금리로 선보인다.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0만원(세전)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자체 재원으로 '원한대출'을 선보였다. 소득 및 재직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나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에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취약계층도 연 4.37~6.6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자체 재원이나 지자체와 연계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상품설명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시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목포시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와 무안군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 퍼스트뷰' 등 총 777가구의 분양을 7일부터 들어간다. 사진은 목포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투시도.

중흥건설, 목포 하당지구 '센텀뷰' 무안 남악 '퍼스트뷰' 777가구 공급

무안 남악신도시에 견본주택 오픈...오늘 동시 분양 개시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전남 목포시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와 무안군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 퍼스트뷰'를 7일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는 지하 5층~지상 49층 4개동으로 전용 84㎡A 312가구, 전용 84㎡B 160가구, 전용 110㎡ 152가구, 전용 134㎡ 47가구, 전용 158㎡ 47가구, 전용 196㎡ 47가구, 전용 221㎡ 47가구 등 총 6407가구이다.

또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 퍼스트뷰는 남악신도시 주상 5블럭에 지하 2층~지상 25층 4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면적은 전용 134㎡ 129가구와 전용 200㎡ 87가구 등 1377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하당지구 센텀뷰는 2022년 9월, 남악신도시 퍼스트뷰는

2021년 6월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중흥건설이 내놓는 두 단지는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는 목포를 넘어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최고 49층의 초고층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또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 퍼스트뷰'는 뛰어난 생활환경과 희소한 중대형단지 프리미엄을 갖춰 향후 하당지구와 남악신도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와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 퍼스트뷰' 견본주택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7번지에 7일 오픈 예정이다.

카드 자동이체 최다 신청은 '무선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장 200%이상 급성장

최근 3년 자동이체 서비스 최다이용은 '무선통신비'로 집계됐다.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이용은 200%넘게 급성장 중이다.

6일 BC카드 빅데이터팀이 자사 카드로 자동이체(RP)를 신청한 고객 450만명의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용 금액의 66.8%가 무선통신비로 나타났다.

이용금액 기준 2위인 아파트관리비(14.5%)와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수치다. 3위는 생명보험(5.7%), 4위 학습지(2.6%), 5위 전기요금(2.1%) 순이다.

카드를 RP를 신청하는 고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동안 RP를 이용한 고객은 연평균 17.5% 늘었다. 연평균 이용금액과 이용건수도 각각 24.6%, 17.4% 증가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RP하는 고객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RP를 이용한 금액 및 건수가 최근 3년 연평균 218.6%, 237.7% 증가했다. 4대보험과 도시가스 전기요금 업종도 매년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모바일 IRP 신규 업무 24시간 가능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6일 모바일 뱅킹에서 연중무휴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IRP 신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보유상품 변경도 13일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적립금, 수익률, 운용상품 현황 조회 등을 비롯한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도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제공된다.

올 하반기 중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1위 은행 사업자로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편의성 향상,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모바일 뱅킹에서 IRP에 1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한류 콘텐츠를 상담하다 2018 국제방송영상마켓 전시회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부스 관계자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추석엔 우리 농식품으로"...농식품부·대한상의 캠페인 전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과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식품 업체를 돕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

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285개 품목이 수록된 '우수 농식품 모음집'과 공동 명의의 홍보 포스터를 대한상의 회원사에 배포해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2~13일 대한상의 회관 내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해 직원과 임주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을 많이 애용해달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식품 업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공동 상설협의체인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를 통해 농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힘쓰고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